

【특집】

일본 유교잡지 《사문(斯文)》 소재 문원란(文苑欄)의 성격과 의의*

백진우**

- I. 머리말
- II. 《사문(斯文)》의 체제와 문원란(文苑欄)의 성격
- III. 한학(漢學) 부흥의 측면에서 본 문원란 소재 글의 특징적 면모
- IV. 맺음말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간행한 유교잡지 《사문(斯文)》 소재 문원란(文苑欄)에 실린 한문(漢文) 기사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사문》에는 목차(目次), 회보(彙報), 신간소개(新刊紹介), 회보(會報) 등 정기 간행물로서 구비해야 할 정보 제공 차원의 고정란과 함께, 논설(論說), 문원(文苑), 잡록(雜錄) 등 문예물을 수록하는 고정란이 기본 체제로 갖추어져 있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고정란은 한문(漢文)으로 작성한 ‘문원’란이다. 사문회 설립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한학(漢學) 연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정란 가운데 일문(日文)으로 작성한 ‘논설’이나 ‘잡록’과는 다른 성격과 지향을 갖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사문》의 편집 체제를 살피고, 그 가운데 문원란의 대체적인 성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 성격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1919년 창간호부터 1945년 9월에 간행한 27편9호까지 문원란에 수록되어 있는 시문(詩文)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문원란에는 사문회 회원들이 전통적인 형식을 따라 창작한 한시(漢詩)와 한문 산문(漢文散文) 작품이 다양한 세부 문체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는 한학(漢學)을 부흥시키고자 한 사문회 회원들의 의도적인 문학 창작 활동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배경 위에서 유도(儒道)와 한학 부흥의 측면을 중점에 두고 문원란 소재 글의 특징적 면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한자·한문·한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 유가서(儒家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역사 인물 해석의 관점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당대 일본에서 유도를 부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학의 당대적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이, 문원란 소재 작품 창작을 통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사문회(斯文會), 《사문(斯文)》, 한학 부흥, 일제강점기 유교, 일본 간행 유교 잡지

I.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간행된 유교잡지 《사문(斯文)》 소재 문원란(文苑欄)에 실린 한문(漢文) 기사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유교잡지 《사문》은 1918년 일본의 한학자(漢學者)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학

(漢學) 연구회인 사문회(斯文會)에서 간행한 월간지이다. 《사문》은 지난 1919년 2월 1일 창간호를 간행한 이후 현재까지 발간하고 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최근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일제강점기(1919~1945) 간행분을 정리하고 개별 기사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자료 총서로 출간하였다.¹⁾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 성과에 기대어 출발하였다.

사문회 출범에 앞서 1880년에는 유교에 근거해 사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초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문학회(斯文學會)가 설립되었다. 사문회는 바로 이 사문학회를 모태(母胎)로 한다. 사문학회는 시게노 세이사이(重野成齋) 등 도쿄대학 한학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하고 메이지 시대 이후 세대의 한학자들이 주류가 되어 활동하였다. 그런데 1880년 설립 이후 날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자, 1918년 대대적으로 모임을 정비하고 이름 또한 ‘사문회’로 변경하여 재출범하게 되었다. 바로 이 사문회의 출범과 함께 간행을 시작한 회지(會誌)가 바로 《사문》이다.

예악(禮樂)·교화(教化)·전장(典章)·제도(制度)를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유학(儒學)·유도(儒道)를 일컫는 말로 사용한 ‘사문(斯文)’이라는 모임의 명칭으로부터 알 수 있듯, 이 모임의 목적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급속한 서구화에 맞서 전통 한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 모임에서 내건 ‘한학의 부흥’, ‘교육칙어의 익찬’, ‘국체 정신의 보급’이라고 하는 설립 목적만 보더라도 일제의 도덕과 정신 진흥을 위해 유교(儒教)와 한학(漢學)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이후로는

1) 장순순 외 편, 『일본 유교잡지 『斯文』 기사 상세목록(1919~1945)』,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10, 도서출판 선인, 2022.; 장순순 외 편, 『일본 유교잡지 『斯文』 주요기사 1』,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12, 도서출판 선인, 2022.

일제 군국주의 팽창에 기여할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²⁾

그렇다면 다음으로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간행된 유교잡지를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학계에서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유교와 한문이 갖는 보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상(思想) 측면에서 유교가, 언어(言語) 측면에서 한문이 일제강점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공통분모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한다면, 오늘날 사문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또한 사문회의 활동이 우리나라 성균관(成均館)의 후신이자 일제강점기 조선의 유교 교육 기관 경학원(經學院)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경학원에서는 사문회와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가며 공자(孔子)를 모시는 석전제(釋奠祭)를 함께한다든가, 강연회를 통해 일본의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일본 학자들의 유교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활동을 지속하였다.³⁾ 그리고 이를 통해 일제가 주장한 황도유학(皇道儒學)의 논리를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는 특히 1930년대 이후로 집중적으로 게재된 황도주의 관련 논설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저간의 배경을 볼 때, 사문회에서 발간한 잡지 《사문》은 무척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문회의 주요 구성원들이자 당대 일본 최고의 한학자들이 유교와 한학 진흥을 위해 내세운 주장이 정제된 글의 형태로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의 유학

2) 이상에 언급한 사문의 설립 과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 총서의 총론에서 이규수 선생이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다. 장순순 외 편, 『일본 유교잡지 『斯文』 기사 상세목록(1919~1945)』,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10, 도서출판 선인, 2022. 21~32면.

3) 정세현, 「공자제를 통한 경학원과 사문회의 교류-孔子二千四百年追遠記念祭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35, 우리한문학회, 2016.

자들이 이 논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유학의 성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원형(原形)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문》의 여러 고정 코너 가운데 한문으로 창작한 문예물을 모아 놓은 문원란을 중심으로 그 양상과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사문(斯文)》의 체제와 문원란(文苑欄)의 성격

《사문》은 대부분 60~1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하였고,⁵⁾ 매 호마다 비슷하게 고정란을 설정하였으며 그 순서도 거의 변함이 없다. 고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편집 체제와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고정란	주 언어	성격 및 내용
1	目次	日文	해당 호의 전체 목차 및 면수 안내
2	論說	日文	특정한 주제에 대해 주장의 성격을 가지는 글
3	文苑	漢文	회원들의 창작 시문(詩文)
4	雜錄	日文	기행문·수필 등 가벼운 성격의 글
5	彙報	日文	일본 국내외 유학·학술 관련 동정
6	新刊紹介	日文	신간 학술서 요약 소개
7	會報	日文	사문회 내 활동 및 회원 동정

목차(目次), 회보(彙報), 신간소개(新刊紹介), 회보(會報) 등은 정기

4) 실제로 어윤적(魚允迪), 김완진(金完鎭), 안인식(安寅植), 공성학(孔聖學)을 비롯한 조선의 몇몇 유림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고, 대동사문회, 강원도 유도천명회, 유도진흥회 등이 단체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장순순 외 편(2022), 28면 참조.

5) 공자 2,400주년 제사 특집호인 4편5호(1922.10.01. 간행)만 246면 분량으로 간행하였다.

간행물로서 마땅히 구비해야 할 ‘정보 제공 차원’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사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란은 논설, 문원, 잡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 사문회에서 유교잡지 발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부분 이 세 개의 고정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개 고정란을 중심으로 사문의 체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논설란(論說欄)에는 매 호 2~3편 내외의 글을 실었다. 논설란은 거의 대부분 일문(日文)으로 작성하였으며, 주로 사문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자·유교·한학 관련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당시 일본의 정치·경제·군사·문화·교육·학문·문학·출판·역사 등의 다양한 주제도 폭넓게 다루었다. 정치 관련 논설 가운데에는 일제가 1932년 괴뢰국으로 세운 만주국과 관련하여 14편 5호(1932.05.01.)에 39편의 글을 다량으로 실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논설란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학·사상에 관한 논설도 다수 실려 있어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조선에서의 유교[朝鮮に於ける儒教]’(5편2호, 1923.04.01.), ‘사변록을 읽다[思辨錄を讀む]’(9편1호, 1927.01.01.), ‘공자의 가르침과 조선민족[孔夫子の聖訓と朝鮮民族]’(10편5호, 1928.05.01.), ‘고려판 용감수경 해설[高麗版龍龕手鏡解説]’(11편10호, 1929.10.01.),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11편10호, 1929.10.01.), ‘목은 이색[牧隱李穡]’(13편2호, 1931.02.01.), ‘조선 관본 『논어언해』에 대하여[朝鮮官本論語諺解に就いて]’(13편4호, 1931.04.01.), ‘성대중의 일본 기행[成大中の日本紀行]’(17편7호, 1935.07.01.), ‘이퇴계[李退溪]’(21편11호, 1939.11.01.)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러한 성격의 글은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의 조선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문원란(文苑欄)에는 매 호 10편 내외의 글을 실었다. 물리적인 분량으로만 보더라도 《사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원란은

거의 대부분 한문(漢文)으로 작성하였으며,⁶⁾ ‘문단(文壇)’이나 ‘문학계(文學界)’를 의미하는 ‘문원(文苑)’의 뜻으로 짐작할 수 있듯, 일본 학자들이 한문으로 창작한 시문(詩文)을 주로 싣고 있다. 앞서 살펴본 논설란에서 특정한 주장을 일문으로 담은 것과는 달리 전통적인 한시와 한문 산문의 격식에 따라 창작한 문예적 성격의 글이 주를 이룬다. 문원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잡록란(雜錄欄)에는 매 호 5편 내외의 글을 실었다. 잡록란은 거의 대부분 일문으로 작성하였으며, 말 그대로 잡다한 성격의 글을 다채롭게 수록하고 있다. 세밀하게 구별한다면 무게 있는 주장을 담은 논설란이나 문예취가 강한 문원란에 포함되지 않는 가벼운 성격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을 여행한 후 남긴 기행문(紀行文), 수필과 같은 일상문, 추도문(追悼文)과 추도시(追悼詩), 지역 소식 등의 글이 주로 실려 있다.

잡록란 수록 글 가운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조선·중국 유람기[朝鮮支那漫遊談]’(1편1호, 1919.02.01.), ‘경성을 가다[京城行]’(3편6호, 1921.12.01.), ‘조선에서 유교와 경학원 임무[朝鮮に於ける儒教と經學院の任務]’(5편1호, 1923.02.01.), ‘금강산에서[金剛山より]’(11편5호, 1929.05.01.), ‘경성 유람기[京城遊記]’(11편8호, 1929.07.01.), ‘금강산[金剛山]’(11편9호, 1929.09.01.), ‘조선 여행[朝鮮の旅]’(12편11호, 1930.11.01.), ‘경성 통신[京城通信]’(13편7호, 1931.07.01.) 등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논설란에 실려 있던 조선 관계 글과 마찬가지로 잡록란에 실린 글도 조선에 대한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인식을 간취해낼 수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음으로 휘보란(彙報欄)과 회보란(會報欄)은 사문회 안팎의 유학

6) 4편 5호(1922.10.01.) 문원란에 ‘공자 2,400년 제사에서[孔夫子二千四百年祭に]’라는 제목으로 수록한 10여 편의 시만 와카[和歌] 형태로 작성하였을 뿐,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한문으로 작성하였다.

관련 각종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한 고정란이다. 이 고정란은 일문으로 작성하였다. 휘보와 회보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휘보의 경우 일본 국내외의 유학·학술 관련 내용을 수집한 반면 회보의 경우 사문회 내의 강연(講演)·부고(訃告)나 회원 활동을 주로 신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역시 휘보와 회보 가운데에도 조선 유학자들과의 교류 활동을 기재한 기사들을 제법 찾을 수 있다. ‘조선유림관광단[朝鮮儒林觀光團]’(2편6호, 1920.12.01.), ‘조선유림 초대회[朝鮮儒林招待會]’(3편3호, 1921.06.01.), ‘조선유림관광단 유시마 성묘 참배[朝鮮儒林觀光團湯島聖廟參拜]’(3편4호, 1921.08.01.), ‘조선의 석전[朝鮮に於ける釋奠]’(3편5호, 1921.10.01.), ‘조선의 문묘 석전[朝鮮の文廟釋奠]’(8편8호, 1926.11.01.), ‘조선유림연합회의 통고문[朝鮮儒林聯合會の通告文]’(19편10호, 1937.10.01.) 등의 기사는 사문회와 경학원 사이의 교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신간소개란(新刊紹介欄) 역시 거의 매 호 실리는 고정란이다. 근간(近刊)의 학술 서적들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4~5종에 대해서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저자·출판사·가격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였다. 사문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신간소개는 주로 유도(儒道)를 근간으로 하는 학술 관련 서적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밖에 목차에 고정란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권두(卷頭), 광고(廣告), 부록(附錄) 등도 거의 매 호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중 권두는 일종의 해당호 권두언(卷頭言)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상에서 《사문》의 기본적인 편집 체제와 개요를 대략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고정란은 문원란이다. 문원란에는 1919년 창간호부터 1945년 9월에 간행한 27편9호까지, 총 268호에 걸쳐 1,870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문원란은 주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문회 회원들의 한학 부흥에 관한 바람과 열망이 온전한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논설란에서 주로 ‘주장’을 담고 있

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창작한 시문(詩文)을 전통적인 문체의 한 문 ‘작품’으로 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문원에는 한시(漢詩)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송시(送詩)·영사시(詠史詩)·차운시(次韻詩)·악부시(樂府詩)·만시(輓詩)·축수시(祝壽詩) 등 다양한 시체(詩體)를 확인할 수 있다. 한문 산문 역시 기(記)·논(論)·서발(序跋)·송서(送序)·서후(書後)·묘지명(墓誌銘)·제문(祭文)·화상찬(畫像讚) 등 다양한 문체를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당대 사문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창작 작품을 수록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일치시키고자 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문원란 자체가 조선 유학을 직접적으로 논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고정란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유도와 한학 부흥의 논리를 한문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문회가 조선 유학계에 미친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학을 부흥시키고자 한 일본 지식인들의 활동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도 한학 부흥의 측면과 창작의 실제 측면에서 문원란 소재 글의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한학(漢學) 부흥의 측면에서 본 문원란 소재 글의 특징적 면모

앞서 언급했듯 사문회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은 유도(儒道) 부흥에 있었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구화의 급속한 추진에 역점을 두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도와 한학(漢學)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지식인들의 모임이 사문회였기 때문이

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문회의 의도가 《사문》 내 문원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자 한문의 중요성 강조

유학의 근본을 온전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한문(漢文)을 알아야만 하고, 한문을 온전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한자(漢字)를 알아야만 한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문》 내에는 한자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한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곳곳에서 보인다. 먼저 한자 폐지에 관한 당대의 인식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한자폐지불가론[漢字不可廢論]」을 보자.

메이지 초년에 구미 열강들과 동맹을 맺고 조약을 정해 배와 수레가 오가면서 저들의 공예와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점을 가져오고 단점을 보완하며 공예와 기술이 날로 발전하였고 온갖 물건이 모두 새로워졌으며 봉건 시대의 잔재들을 찾아내 폐기하고 인재를 가려 등용함에 그 가문에 구애받지 않았다. 이에 입신(立身)하고자 하는 이들은 다투어 서양의 가로글자를 배우며 등용을 기대하였고 육경(六經)은 쓸모없다고 여기며 높은 누각에 매달아 두었다. 그러다 서양의 풍조가 차츰 스며들자 경박한 무리들은 또한 한자는 획이 복잡하여 세상에 쓰이기 불편하다고 하며 한자를 없애고 가로글자를 전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소경과 귀머거리의 논설일 따름이다. 청컨대 그 잘못을 논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⁷⁾

7) 鈴木幹興, 「漢字不可廢論」, 『斯文』10편3호(1928.03.01.). “明治初年與歐米列國訂盟定約, 舟車往來也, 知彼工藝技術有勝於我者. 取長補短, 工技日興, 百物悉新, 尋廢封建, 用人擇才, 不必拘門地. 於是士之欲立身者, 爭講蟹行之書, 以期登用, 訖至爲六經無用, 束之高閣. 而歐風之所浸染, 輕躁之徒, 又謂漢字繁畫不便世用, 欲廢之而專用蟹行字, 是盲論耳, 瞽說耳. 請論其非而正其謬.”

스즈키 간코(鈴木幹興)의 글이다. 인용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앞선 기술과 문물이 들어오면서 일본 역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스즈키는 이러한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지 정신과 도덕의 영역에까지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사문화 학자들의 인식 속에는 오로지 서양의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유학과 한학을 진부하고 폐기해야 할 것으로 여기던 당대의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 기저에는 유학과 한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육경(六經)의 폐지가 있었고, 다시 그 밑바탕에는 한자 폐지론이 자리를 잡고 있다.⁸⁾ 위 인용문은 바로 그에 대한 반박을 목적으로 지은 글이다.

한자 폐지론을 반박하기 위해 스즈키 간코는 다음의 몇 가지 근거를 들어 한자를 배우기 어렵다는 통설에 반박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설파하였다.

비록 한자는 획이 번다하여 배우기 어려우며 세상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간결하게 뜻을 전달하는 데에는 가나보다 훨씬 낫다. 어려서부터 한자를 배워 간결한 데에서 복잡한 데까지 들어가면 배우기에 그리 어렵지도 않은데, 한자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겉

8) 이러한 현실 판단은 스즈키 간코 개인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사문화 회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오야나기 시게타의 다음 글을 함께 볼 만하다. 小柳司氣太, 「教育勅語渙發の由來と儒教」, 《사문》 21권2호(1939.02.01.). “「교육칙어」 환발의 유래와 유교와의 관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실제로 문부성의 여러 학교에 관한 교과를 보면 낱말이 더욱 한문교육 수업이 줄어들고 한자를 삭감하고, 특히 교육의 원천인 사범학교에서도 겨우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오경은 변변치 않은 『논어』라도 원본을 읽은 적이 없다. 이는 교수를 담당하는 자도 한문으로 작문하는데 어휘를 보조할 정도이며, 도의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 철학과 윤리학 등의 교과는 있더라도 모두 서양의 철학과 윤리학이며 경서는 도외시한다.”

으로만 서양의 가로글자를 흡수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먼저 한자는 획이 번다하여 배우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데 대한 반론이다. 스즈키는 한자의 획이 번다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 유리한 표의문자(表意文字)로서의 장점을 강조하고,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면 비록 복잡하더라도 배우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는 논리를 편다.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있다. 스즈키는 한자를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한자 사용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서양의 문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자 해서는 아닐까라고 추정한다. 다시 말해, 한자폐지론은 한자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고려한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라, 당대 일본에 만연해 있던 서양 문물 추숭에 따른 결론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문장은 본래 한자를 날줄로 삼고 가나를 씨줄로 삼아 이를 엮어 문장을 만든다. 대개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니 또한 그 사이에도 묘한 쓰임새를 엮을 수 있다. 지금 망령되어 한자로 한정하여 모두 그에 근거한다면 문장은 끝내 읽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라의 문장과 교육을 논하는 이들이 이와 같으니 나는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¹⁰⁾

스즈키를 비롯한 사문화 회원들은 맹목적인 서구화에 반대하며 유도

9) 鈴木幹興, 「漢字不可廢論」, 『斯文』10편3호(1928.03.01.). “雖謂漢字繁畫難學, 不便世用, 而簡明達意, 大勝假字. 幼而習之, 自簡入繁, 非甚難學, 而說其不便者, 無乃外慕蟹行文而然乎?”

10) 鈴木幹興, 「漢字不可廢論」, 『斯文』10편3호(1928.03.01.). “我國文章本以漢字爲經, 假字爲緯, 錯綜成文. 蓋其所由來者久, 亦可以寓妙用于其中. 今妄限定漢字, 令悉據之, 則文終至不可讀矣. 論國家文教者而如是, 吾不知其何心也.”

와 한학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반박하는 논리를 통해 당시 일본에서 서구화를 통해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던 지식인들이 한자 사용을 반대하던 논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한자 배척의 논리 밑바탕에는 한학을 배척하는 당시 경향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단지 표기 수단으로서 불편함이 있기 한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학문을 높이고 한학을 도외시하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본 것이다.

대개 한자를 배척하는 일은 한학을 배척하는 데서 기원하였고, 한학을 배척하는 일은 세상의 쓰임에 절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는 그 근본을 궁구하지 않아서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이는 도와 의를 근본으로 삼고 재예를 그다음으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사의 절조[士節]가 썩어버리고 기교와 거짓[巧詐]만이 풍조를 이루어 위아래가 모두 이익만을 다투게 되니 나라가 위태로워진다.¹¹⁾

애초 이 글의 논의는 한자 폐지에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결국 한문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 그리고 한학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로까지 확장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 단지 당대 학자들의 견해로 국한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대(前代)의 학자들로부터 이어진 논리와 부합하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사쿠마 쇼잔(象山佐久間, 1811~1864)이 말했다. ‘동양의 윤리와 서양의 공예를 함께 갖추어 배우면 지극한 정치를 이룰 수 있다.’ 이는

11) 鈴木幹興, 「漢字不可廢論」, 『斯文』10편3호(1928.03.01). “蓋排漢字起於排漢學, 而排漢學在謂不切世用矣. 然是而未究本根也. 經國者以道義爲本, 才藝次之. 不然士節朽腐, 巧詐成風, 上下交征利而國危矣.”

실로 탁월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으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동양의 고전을 깊이 연구한다고 한다. 저들은 자기네 나라의 학술로 만족하지 않고 동양의 학술까지 깊이 연구하는데 우리 나라의 학자들은 도리어 전인들이 깊이 연구한 경전을 버려두고 돌아 보지 않는다. 아! 결국 저들에게 배움을 청하겠다는 말인가?¹²⁾

사물이나 사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논하는 논변류(論辨類) 산문의 창작 전통에서, 자신의 주장과 상통하는 전대의 논의를 가져오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修辭) 방식이다. 따라서 스즈키가 ‘논(論)’으로 작성한 이 글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바는 바로 위 인용문에 다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으로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상적·윤리적 토대를 전통 한학에서 찾아야 하고, 서양으로부터는 앞선 기술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서양인들도 오히려 동양의 학술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일본인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학을 폐기해야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는다.

그렇다면 한자만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문 또한 장차 세상에 쓸모를 더할 것인데 세상의 식자들이 한 마디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폐지하고자 하니 유독 어떤 마음에서인가?¹³⁾

앞서 확인했듯이 글의 제목은 「한자폐지불가론[漢字不可廢論]」이

12) 鈴木幹興, 「漢字不可廢論」, 『斯文』10편3호(1928.03.01.). “象山佐久間氏曰, ‘東洋倫理, 西洋工藝, 兼修而可以成至治矣.’ 此可謂見之卓者也. 近聞獨塊諸國, 今荐考究東洋古典. 彼不以其國學術自足, 而研鑽及東洋, 而我學者, 反棄前人所大究之經傳而不顧. 吁嗟竟將請教于彼耶?”

13) 鈴木幹興, 「漢字不可廢論」, 『斯文』10편3호(1928.03.01.). “然則漢字不唯不可廢, 漢文亦將益有用, 而世之識者, 未嘗一言及之, 而反欲廢之者獨何心耶?”

다. 그러나 한자는 어디까지나 단초(端初)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문(漢文)과 한학(漢學)을 보존하고 깊이 연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사상적·윤리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 글은 비록 스즈키 간코라는 특정한 필자가 작성한 글이지만, 어느 한 사람의 소극적인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글의 뒤에 붙어 있는 사문회 회원의 논평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자, 한학, 한문은 모두 폐지할 수 없다. 사쿠마[象山]의 말씀은 전대 현인이 남긴 ‘화혼한재(和魂漢才)’의 말씀이다. 경세가의 말이 마치 부절(符節)처럼 꼭 들어맞는다. 오늘날 세상을 보라, 어찌 한자가 어려운가 쉬운가를 따질 때인가! 이 글은 입론(立論)이 바르고 크기에 탄복을 금할 수 없다.¹⁴⁾

위의 인용문은 스즈키의 글 뒤에 덧붙인 논평이다. 논평 뒤에 ‘康拜讀’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康’이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비슷한 시기에 《사문》에 여러 편의 글을 남긴 이로 오구라 야스하루(小倉康父)라는 인물이 있는데, 혹 이 인물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회원이 남긴 글을 다른 회원들이 돌려 읽으며 논평을 덧붙이는 관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의 논평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과 옹호의 관점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문회 회원 사이에서의 논평이기 때문이다. 왜 좋은 글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논평으로 볼 만하다. 여기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지향의 공유·공감의 문제이다. 사문회에서 한학·유도 부흥을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웠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14) 鈴木幹興, 「漢字不可廢論」中 논평 부분, 『斯文』10권3호(1928.03.01.). “漢字漢學漢文, 皆不可廢. 象山氏之說, 則往哲和魂漢才之說也. 經世者之言如合符節. 請見今日之域中, 豈論漢字之難易時也哉. 此文立論正大不禁佩服. - 康拜讀”

인용문 논평에서는 스즈키가 언급한 사쿠마 쇼잔의 학설을 ‘화혼한재(和魂漢才)’로 일컬으며 자신들의 지향과 전대 현인의 지향이 일치하고 있음을 높이고 있다. 일본 고유의 정신에 더해 중국 전래의 학문을 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화혼한재’의 논리가 한학으로부터 정신적 기반을 찾고, 서구 문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대 자신들의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사문》은 여러 회원들이 기고한 글을 모은 잡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몇 편의 글을 통해 확인한 논조만을 가지고 당대 일본 지식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완벽하게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학과 유도를 중시한 당대 일본 지식인들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윗글에서 확인했듯, 한자에서부터 한문을 거쳐 한학으로 이어지는 논리는 무척 명확하다. 한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이고, 한문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한학으로부터 일본 지성 전래의 정신적·도덕적·사상적·윤리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학을 전격적으로 논한 다음의 글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한학을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말하기를, “한학의 공이 여기까지라는 말인가?”라 하였다. 말하기를, “아니다. 이는 그 대강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학이라는 것은 몸을 닦는 학문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학문이다. 천자로부터 서인들에 이르기까지 법으로 삼을 만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세운은 때에 따라 나아가니 참으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예법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 짐작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큰 근본은 시종일관하며 천고에 바뀌지 않는다. 동양이 서양에 자랑할 것은 한학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나아간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학의 폐단은 옛것만 옳고 현재는 그르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학자의 죄이다.”라 하였다.¹⁵⁾

인용문은 스즈키 에이조우(鈴木榮藏)의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한 학이 일본에 전래된 이래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대와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조목조목 논하였다. 위 인용문은 그러한 논변 뒤에 한학 폐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한학의 생명력이 이제 끝났으니 곧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위와 같이 반박하였다. 비록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세가가 읽지 않을 수 없고, 교육자가 읽지 않을 수 없으며, 장사치 또한 여기에서 감계를 얻지 않을 수 없다. 득의한 사람이 읽으면 교만하고 탐내는 마음을 없앨 수 있고, 실의한 사람이 읽으면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을 멀리할 수 있다. 강상을 올바르게 하고 풍고를 돈독히 하려는 이가 다행히 이 책에 힘입는다면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들어가 생각이 절반은 넘게 들어맞게 될 것이다. 누가 유학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책이라 배우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가? 이는 가만히 앉아서 그 실질이 우리나라에 있고 저들에게는 단지 명분만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단이 횡행하여 교활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 해가 심하여 분별하기 어렵다. 백성들의 이목을 덧칠하고 천하를 혼탁함에 빠뜨리고 있으니 실로 정명도(程明道)의 말과도 같다. 민심이 한 번 이단에 빠지면 단지 옛글만 기억하는 학문[記聞之學]이나 백 가지 많은 도구와 교묘한 솜씨[百爾器巧]를 어디에다 쓰겠는가? 누가 능히 한계를 넓혀 유학의 올바름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¹⁵⁾

15) 鈴木榮藏, 「論漢學」, 『斯文』9편2호(1927.02.01.). “漢學曷可廢哉? 曰漢學之功止於茲乎? 曰否. 是不過其大綱耳. 漢學者修身之學, 而治國之學也. 自天子以至於庶人, 其可法者, 不一而足焉. 世運與時俱進, 固不可以此爲足耳. 如夫禮法, 不可不應時而爲之斟酌, 而其大本, 終始一貫, 千古不易也. 東洋之可誇于西洋者, 其在漢學歟! 由是以進, 則庶乎其不差也. 然而漢學者之弊, 在是古非今, 是學者之罪也.”

16) 鈴木榮藏, 「論漢學」, 『斯文』9편2호(1927.02.01.). “經世家不可不讀焉, 教育家不可不讀焉, 商家亦不可不取鑑戒於此也. 得意者讀之, 可以去驕吝, 失意者

앞서 한학의 본질에 대해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한학의 현재적 가치와 효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한학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세가, 교육가, 장사치 등 처지와 신분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 공부를 통해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한자폐지불가론[漢字不可廢論]」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도 동료 회원들의 논평이 다음과 같이 부기되어 있다.

한학을 폐지할 수 없음을 논하였는데 조리 있게 핵심을 찔렀다. 筆勢 역시 굳건하고 상쾌하며 시원스럽고 분명하여 거침없이 막을 수 없는 기세가 있다. (구라가 자쿠스이 / 日下勺水曰: 論漢學之不可廢, 鑿鑿中覈. 筆亦健快暢達, 有沛然不可禦之勢.)

正學을 숭상하고 邪學을 물리쳐 儒道를 밝혔다. 도도한 1,200여 글자가 마치 장강과 대하를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아 淡水氏의 재주와 생각을 볼 수 있다. (다키카와 스케노부 / 瀧川君山曰: 崇正闢邪, 以明斯道. 滔滔一千二百餘言, 如長江大河不可抑止, 亦足以見淡水氏才情.)

구라가와 다키카와의 논평은 풍격 비평, 인상 비평 등 전통적인 한문 산문에서 구사한 논평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들의 논평 또한 앞서 살펴본 논평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평가이다. 따라서 유도 부흥이라는 사문화 회원들의 일정한 지향점을 공유

讀之, 可以遠怨尤也. 正綱常敦風教者, 幸賴此書之存, 人人自此等處入, 則有思過半者也. 誰謂斯學亡國之遺書不足學. 是坐于不知其實之存於我國, 而彼徒有其名耳. 今也異端橫行, 巧入人心, 其害深而難辨, 塗生民之耳目, 溺天下於污濁者, 洵如明道程氏言. 民心一陷, 則記問之學與百爾器巧, 何用之爲. 不知誰能闢之廓如, 以顯斯學之正也.”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문원란에서 사문회 회원들이 전통적인 한문 작문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내고 있는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던 한자, 한문, 한학 부흥의 논지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논설란에서 주로 일문으로 작성한 것과 달리 한문으로, 그것도 전래의 창작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 유가서에 대한 인식

문원란에는 유가서 및 관련 서적과 작품을 읽고 이에 대해 논한 글이 다수 실려 있다. 대부분 책을 읽고 난 후의 감상 따위를 기록한 독후기(讀後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한문 산문의 전통적인 문체 분류에 비춰보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논변류(論辨類)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독후기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평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문》 문원란에 글을 실은 당대 일본 지식인들, 그리고 이들을 위주로 구성된 사문회 구성원들의 유가서 인식을 간취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볼 부분은 강독 모임이다. 한학자들이 모인 사문회에서는 유가의 주요 경전을 함께 모여 읽고 논하는 강독회(講讀會)를 상시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문회의 전신인 사문학회 때부터 이미 『논어』를 비롯하여, 『주역(周易)』·『서경(書經)』·『시경(詩經)』·『맹자(孟子)』 등 유가의 주요 경전을 정기적으로 강연하였고, 청강자가 2백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가쿠슈인[學習院]의 ‘논어회’에 기원을 둔 ‘연경회(研經會)’를 조직하여 경서 및 한학에 대한 각종 회합을 이 연경회를 중심으로 운영했다고 하였다.¹⁷⁾

문원란에 실려 있는 「사문회 『논어』 강독(斯文會講讀語)」(21편10

호, 1939.10.01.)이라는 시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강독회 운영 정황과 목적을 상세하게 엿볼 수 있다.

同心共窮洙泗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유학의 연원을 궁구하니
清流滾滾晝夜奔	맑은 물 넘실넘실 밤낮으로 흐르네
說起先進終季氏	<先進>에서 시작하여 <季氏>에서 끝나치니
六月六篇講魯論	여섯 달에 여섯 편 논어를 강독하였지

青螢參筵茗溪上	푸른 반딧불이도 명계(茗溪)의 자리에 참여하 였고
白雪照欒芙蓉嶂	하얀 눈도 부용 장막 난간을 비추었지
斯文會友一百人	사문에 모인 벗들 일백 명
寒暑不厭來尋訪	추위와 더위에도 싫어하지 않고 찾아왔다네

邪說汜濫奈百川	邪說 범람하니 온갖 냇물 어찌할까
決瀋息距誰著鞭	물길 터서 사설 종식시키고 막아내는 일에 누 가 채찍 잡고 앞장설까
神禹疏鑿孟軻辯	우임금이 물길 터서 흐르게 한 일은 맹자께서 변론하여
勳業赫奕萬古傳	그 훈업 혁혁하여 만고에 전한다네

坤輿形勢聖皇覽	천하의 형세를 성스러운 천황께서 굽어보시네
膺懲出師不憚險	응징하는 군사 내어 힘지를 꺼리지 않으며
誅暴除虐蘇殘民	포악한 이들 주살하고 제거하여 남은 백성들 되살리고
於變時雍去舊染	변화하는 시대 끌어안고 구습은 제거한다네

17) 사문회 성립 이전 여러 모임의 대략적인 상황[斯文會成立以前の諸會の概況], 장순순 외 편, 『일본 유교잡지 『斯文』 주요기사 1』,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12, 도서출판 선인, 2022. 21~39면 참조.

時哉維時難再得	오직 때가 중요하여 다시 얻기 어려우니
興亞大猷須審識	아시아를 흥기시키는 큰 계획 모름지기 살펴 알아야 하네
敬道崇儒儒範存	도를 공경하고 유학을 숭상하여 유학의 전범 이 남아 있다면
八紘一字神明國	천하가 하나의 세상 신명한 나라라네

위에 인용한 시는 가토 도라노스케(加藤虎)가 지은 한시이다. 잡지에 수록된 원문에는 별다른 편집 구분 없이 원문 전체가 하나의 시처럼 실려 있다. 하지만 내용과 운자(韻字)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위에 나뉘 제시한 것처럼 7언절구 5수 연작 형태로 봐야 마땅하다. 또한 이 한시 작품은 하나의 문예물로 보기보다는 사문회의 활동, 유학의 가치, 일왕 찬양, 전쟁 정당성 부여 양상 등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수부터 제3수까지는 사문회의 논어 강독회 활동과 유도의 가치 제고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문회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가 유가의 경전 강독 모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지향을 지닌 여러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진(先進)」편에서부터 「계씨(季氏)」편까지 『논어』 여섯 편을 여섯 달 동안 강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2수에서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의 고사를 가져옴으로써 유학 공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공부 모임이 여름에 시작하여 겨울에 끝나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었다.

제3수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유학의 경전에 침잠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유학에 대비되는 사설(邪說)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오직 유학만이 그릇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라고 보았

다. 이는 사문회의 창립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활동이다. 이렇듯 제1수부터 제3수까지는 사문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유가의 경전을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목적이 결국 사설을 물리치고 유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제4수와 제5수에서 이들이 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결국 천황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일제의 전쟁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문회 회원들이 유가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수의 ‘응징하는 군사 내어[膺懲出師]’라는 시어는 여러 형태의 군대 가운데 적의 침략에 대응하는 군대, 즉 ‘응병(應兵)’을 뜻한다. 『한서(漢書)』 「위상전(魏相傳)」에서는 흉노(匈奴)에 출정하고자 하는 한 선제(宣帝)에게 위상(魏相)이 다음과 같이 간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난(亂)을 구원하고 포악한 자를 주벌하는 것을 의병(義兵)이라 이르니 군대가 의롭게 출동하는 자는 왕 노릇을 합니다. 적(敵)이 자신을 침공하여 부득이 일어나는 것을 응병(應兵)이라 이르니 군대가 대응하여 출동하는 자는 이깁니다. 작은 일을 다투고 한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을 분병(忿兵)이라 이르니 군대가 분해서 싸우는 자는 패합니다.”¹⁸⁾ 여기서 ‘응병출사’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첫째, 당시 일제의 출병에 대한 명분을 적의 침공으로 인한 부득이한 대응으로 포장했다는 점이다. 둘째, 자신들에게는 이처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이다.

제5수에서는, 제4수에서의 결과가 확장되어 그 최종 결과가 일종의 점층법처럼 제시되고 있다. 적들의 침략에 대응하는 군사를 출병하여 승리함으로써, 결국에는 아시아를 제패하고 합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18) 『漢書·魏相傳』, “救亂誅暴, 謂之義兵, 兵義者王. 敵加於己, 不得已而起者, 謂之應兵, 兵應者勝. 爭恨小故, 不忍忿怒者, 謂之忿兵, 兵忿者敗.”

이다. 그리고 이때가 다시 얻기 힘든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앞의 3수에 이어 제시된 제4수와 제5수에서 보이는 내적 논리는 이른바 ‘황도유학(皇道儒學)’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주지하듯 사문회는 전시체제가 하에서 일제의 침략 논리를 유학으로부터 찾아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바로 그러한 흔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유학의 본령인 『논어』를 강독하는 이유 역시 결국에는 유가의 경전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가운데 일제의 침략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사문》에서 확인 가능한 유학 연구는 단순히 당대 학자들의 순수한 학문적인 열정이 반영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문원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지점으로, 사문회의 『논어』 연구가 다양한 주석서를 모두 포괄하는 폭넓고 깊이 있는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들은 후대에 나온 주석서를 하나의 통로로 삼아 『논어』 이해를 폭넓게 하고자 하였다.

이를 문원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사문회 소속 학자들이 자신의 학설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으로도 활용된 듯하다. 예를 들어, 이케타니 에이신(池谷盈進, 1863~1940)은 『논어』 가운데 ‘인(仁)’의 의미를 탐구한 후 『『논어』에서 仁을 언급한 여러 장에 대해 강론한 글[講論語說仁諸章序]』(13편1호, 1931.01.01.)을 실어 자신의 견해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孔門의 ‘仁’에 대해 후대 유자들은 오로지 ‘愛’로 그것을 설명한다. 예전에 나는 젊은이들을 위해 『논어』에서 仁에 대해 말한 여러 장을 25장으로 강론한 적이 있는데, 그 뜻을 미루어 보면 꼭 반드시 愛로 인에 대한 설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공자께서는 사람에게 따라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잘 빚어내

가르침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 인에는 뭐라 딱 정해진 의미가 없다.¹⁹⁾

이케타니는 젊은이들을 위해 논어를 강론하는 경험 속에서 유가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인(仁)’에 대해 더 깊이 궁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25개 장(章)으로 정리하여 유가의 인을 대부분 ‘애(愛)’로 풀이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듯하다. 출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는 하나의 연구서라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본다면 이 서문은 자신의 연구 성과에 붙인 일종의 자서(自序)라 할 수 있다. 이 글에 대해 야마타 세이사이(山田濟齋, 1867~1952)는 “짧은 단편이지만 중요하고 큰 의론을 행했다. 감개한 마음이 달려 있으니 허튼 작품이 아니다.(寥寥短篇, 行絕大議論. 感慨係焉, 匪徒作)”라고 논평하기도 하였다.

이케타니의 글이 유가 경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출하고 이를 공론화한 것이라면, 동시대 일본인 학자의 경전 주석서에 대해 논평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고등사범학교 교사 등으로 재직하던 히로시 오기와라(荻原擴), 우치노 다이레이(內野台嶺), 다케바야시 간이치(竹林貫一) 등이 함께 지은 『논어강의(論語講義)』라는 저술에 붙인 『『논어강의』 서문[論語講義序]』(1편5호, 1919.10.01.)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에는 서문을 작성하게 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히로시 오기와라·우치노 다이레이·다케바야시 간이치는 모두 고등사범학교에 재직하면서 교수 학도를 길러내는데 힘썼는데, 이들은 논어에도 식견이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아침저녁으로 토론하여 『論語講

19) 池谷盈進, 「講論語說仁諸章序」, 『斯文』13편1호(1931.01.01.). “孔門之仁, 後儒專以愛說之. 頃日余爲少年講論語說仁諸章凡二十五章, 推其意, 未可必謂以愛盡之. 蓋孔子由人設教, 裁長補短, 陶鑄化之. 故仁無定義.”

義』 한 권을 저술하였는데, 내가 일찍이 講席에 있었던 관계로 머리말을 부탁하였다. 펼쳐서 읽어보니 해박하게 인용하여 근거로 삼았고 반복하여 참고하고 증험하였으니, 공자의 뜻을 잃지 않고자 힘썼다. 옛 학설 가운데 서로 증명이 되는 것이 있으면 곧 기록하였고, 또 시비가 있는 곳에는 자세한 설명을 달았는데, 자신들의 뜻을 펼쳐내어 치우치거나 편을 먹는다는 사사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간행된 『논어』 해설서 가운데 이 책이 가장 드물게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서발문은 당대의 권위 있는 문장가나 학자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만 저술의 가치가 세상에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서문은 야스이 고타로(安井小太郎, 1858~1938)²¹⁾가 지었다. 세 명의 공저자와는 사문회의 강연을 통해 맺어진 師承 관계로 보인다. 야스이는 단지 이들이 지은 『논어강의』의 뛰어난 점을 서술할 뿐만이 아니라 유가의 경전에 해설을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 특징을 적시하며 서술하였다. 전통적인 한문 산문 작법으로 해당 저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도 역시 사문회 회원들의 논평 다수를 함께 실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의 논평은 『논어강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야스이의 서문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 함께 달린 다섯 명의 논

20) 安井小太郎, 「論語講義序」, 『斯文』1편5호(1919.10.01.), “荻原擴·内野台嶺·竹林貫一諸子, 俱在高等師範學校, 業成教授學徒, 亦有見於此. 晨夕討論者數年, 著論語講義一卷, 以予曾在講席也, 請書卷首. 披而閱之, 援據該博, 反覆參驗, 務期不失先聖之意. 舊說有相發明輒錄之, 又疏其是非, 而申以己意, 以避偏黨之私. 於近刊論語解說之書, 寔爲希觀矣.”

21) 야스이 고타로는 한학에 능한 학자로 학습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였으며, 사문학회와 사문학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사문》 문원란에 다양한 문제의 한문 산문과 한시를 50여 편 남기기도 하였으며, 유학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 저술을 남겼다. 『日本儒学史』6卷, 『經学史』, 『經學門徑』, 『論語講義』, 『大學講義』, 『中庸講義』, 『日本朱子學派學統表』, 『曳尾集』(詩集), 『朴堂遺稿』5卷, 『礼記』訳注(国訳漢文大成).

평을 아래에 제시한다.

구사카 사쿠스이: 秦나라 때 焚書 이후로 漢나라 때에 訓詁學이 있었고, 훈고학 이후로 宋나라 때 理學이 있었으며, 이학이 통용된 후 明나라 때 心學이 있었다. 그러나 淸나라 때 처음에는 고증학과 성현의 經世濟民의 도리로 이어받았으나 결국에는 문예에 치우치고 말았다. 이른바 『논어』를 읽을 뿐 논어를 모르는 자들이 넘치고 넘칠 정도였다. 이 글에서는 그 폐단을 분별하였다.²²⁾

고마키 마사나리: 전반부의 품평은 합당하고, 뒤 문단의 논거는 확실하며, 결론은 여운을 주어 맛이 있다.²³⁾

나카무라 오케이: 견해가 우뚝하여, 능히 息翁²⁴⁾의 의발을 이을 만하다.²⁵⁾

마키노 겐지로: 문장 역시 평이하면서도 실질이 있고 분명하여 간삽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폐단이 없다. 그러나 글의 맛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기에 평범한 문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은 아니다.²⁶⁾

다키가와 스케노부: 의론이 정확하고 학문에 뿌리가 있으며, 결론

22) 安井小太郎, 「論語講義序」中 논평 부분, 『斯文』1편5호(1919.10.01.), “日下 勻水曰, ‘秦火之餘, 漢有訓詁, 訓詁之後, 宋有理學, 理學已通, 明有心法. 而 淸初承之以考證, 聖賢經濟之道, 終偏於文藝. 所謂讀論語不知論語者, 滔滔皆然. 文能辨其弊.’”

23) 安井小太郎, 「論語講義序」中 논평 부분, 『斯文』1편5호(1919.10.01.), “小牧 櫻泉曰, ‘前半品隅允當, 後段論據確切, 一結餘波有味.’”

24) 에도 시대의 유학자 야스이 슛켄(安井息軒, 1799~1876)을 가리키는 듯하다.

25) 安井小太郎, 「論語講義序」中 논평 부분, 『斯文』1편5호(1919.10.01.), “中村 櫻溪曰, ‘見解卓然, 能繼息翁衣鉢.’”

26) 安井小太郎, 「論語講義序」中 논평 부분, 『斯文』1편5호(1919.10.01.), “牧野 藻洲曰, ‘文亦平實明白, 無鉤棘難曉之弊. 而道味油然, 非尋常文士所能解.’”

부분이 특별히 감개가 있다.²⁷⁾

한 편의 작품에 다섯 명의 논평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책을 여러 사람이 읽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이는 다섯 명의 논평은 모두 서문의 대상이 되는 『논어강의』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다. 야스이가 지은 「논어강의서」 그 자체를 논평의 대상으로 두고 논지의 고하, 문장의 성취, 수사의 장점 등을 논하였다. 이는 마치 야스이의 서문을 전근대 시기 한문 산문 작품을 바라보듯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한학 시대의 관습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문회 회원들은 전통적인 한문 산문 문체인 서발문(序跋文)을 활용하여 글을 작성함으로써 유가 경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문회 소속 학자들이 자신의 학설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문원란에 수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글에서 다른 회원의 논평이 부기되어 있다는 사실도 무척 중요하다. 여기서 대부분의 논평은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지 않는다. 수록한 글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긍정적인 평가 일색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상 냉철한 비평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관점을 옹호하기 위한 편향적 비평에 가깝다. 중요한 점은 문원란에 실린 글이 어느 한 사람의 독창적이거나 고립된 견해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글이라는 데 있다.

3. 역사 인물 해석의 관점

전근대 시기 한자문화권에서 중국 고대사는 한·중·일 3개국의 보편

27) 安井小太郎, 「論語講義序」中 논평 부분, 『斯文』1편5호(1919.10.01.), “瀧川君山曰, ‘議論精覈, 由學有根柢, 一結感慨特深.’”

사로 기능하였다. 중국사이지만 중국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더해 역사를 유가의 경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경사일체(經史一體)’의 중세적 역사관을 떠올려 본다면, 역사 해석에 있어서 유가와와 친연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한학 부흥을 위해 노력한 사문회의 활동에서도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자료는 중국 역사를 바라보는 사문회의 관점을 잘 보여 주는 글이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유교의 진수에 닿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의한 흥미를 전위(前衛)로 하여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일반적으로 지나의 역사는 같은 문자, 같은 인종의 나라로서 우리나라에서 깊은 흥미를 끈다. 우리 국사는 지나사(支那史)를 떼어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나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사실은 그 뒤를 흐르는 유교의 사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교를 배우는 전제로서 먼저 유교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긴급하다. 또한 일면에서는 문학적 흥미의 입장에서 한학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위대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한학자는 헛되이 인의도덕을 입에 올리거나 또는 오로지 거만히 굴며 고답(高踏)하지 말고 먼저 한학의 멋이나 재미를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에 힘을 쏟아 지식계급에서 유교에 관심을 갖게 마치 유신 전처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지식계급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사회교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이를 것이다.²⁸⁾

위의 인용문은 당시 문부성 사회교육국장을 역임했던 세키야 류키치

28) 關谷龍吉, 「사회교화의 기본으로서의 유교[社會敎化の基本としての儒敎]」, 『斯文』13편5호(1931.05.01.). 번역은 다음을 참조. 장순순 외 편, 『일본 유교 잡지 『斯文』 주요기사 1』,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 12, 도서출판 선인, 2022. 255면.

(關谷龍吉, 1886~1976)의 글이다. 그는 역사를 유교의 진수에 닿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여겼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는 떼어놓고 논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둘째, 중국의 역사는 유교 사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셋째, 역사는 흥미롭기 때문에 유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경로가 된다. 여기서 보이는 세키야의 인식은 경사일체의 중세적 역사관을 계승하는 동시에, 당대의 일반 사람들에게 유학 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또한 결국 경전과 역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이 된다는 상보적(相補的) 관점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당송팔대가 가운데 한 명인 소순(蘇洵)에게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經은 道를 위주로 하기에 그 법이 뛰어나며, 史는 일을 위주로 하기에 그 언사가 뛰어나다. 경이 사를 얻지 못하면 그 포품을 증명할 길이 없으며, 사가 경을 얻지 못하면 그 경중을 헤아릴 수 없다. 경은 단정한 세대의 실록이 아니며, 역사는 만세의 상법이 아니다. 그 체제는 다르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서로를 바탕으로 삼는다. …… 만약 후대 사람들이 사를 모르고 경을 본다면 높이더라도 그 선한 실상을 볼 수 없으며, 낮추더라도 그 악의 실질을 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경이 사를 얻지 못하면 그 포품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후대 사람들이 경에 능통하지 못하면서 사를 전한다면 칭찬할 때 법을 알지 못하며 권선징악에 그 내력을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사가 경을 얻지 못하면 그 경중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²⁹⁾

29) 蘇洵, 「史論·上」, 『嘉祐集』 권9, “經以道法勝, 史以事詞勝. 經不得史, 無以證其褒貶, 史不得經, 無以酌其輕重. 經非一代之實錄, 史非萬世之常法. 體不相沿, 而用實相資焉. …… 使後人不知史而觀經, 則所褒莫見其善狀, 所貶弗聞其惡實. 故曰, 經不得史, 無以證其褒貶. 使後人不通經而專史, 則稱讚不知所法, 懲勸不知所沮. 吾故曰, 史不得經, 無以酌其輕重.”

위의 인용문은 아들 소식(蘇軾), 소철(蘇轍)과 함께 사론(史論)으로 일가를 이룬 소순의 글이다. 경과 사가 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역사를 두고 연사가 뛰어나다 고 한 표현은 앞서 세키야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계기’, ‘문학적 흥미’에 가치를 두고 역사를 평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문원란에 수록된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지은 역사시(詠史詩)와 사론 산문(史論 散文)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 인물을 제재로 한 작품에서는 특정한 시기가 요구하는 가치를 담지(擔持)하는 역사 인물을 소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역사 사건이나 인물을 소환하였으며, 또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케타니 에이신(池谷盈進, 1863~1940)이 지은 「시황론(始皇論)」은 유학 이해의 중요한 방편으로서의 역사 인식, 그리고 당대에 사문회 소속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가치 등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의미가 있다.

세상에서 진시황을 논하는 이들은 혹 모두들 책을 불태운 일[焚書]과 유자들을 땅에 파묻은 일[坑儒] 두 사건으로 의론한다. 그런데 이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들의 견해이므로 깊게 나무랄 것도 없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들은 대부분 政治도 모르는데 어찌 時務를 알겠는가? 시황이 민간의 책을 불태운 것은 자신의 다스림에 해가 된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함이었고, 유생들을 파묻은 것은 민심을 현혹시킨다는 사실을 내보이기 위해서였다. 이는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라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 어찌 꼭 진시황이라서 그랬겠는가?³⁰⁾

30) 池谷盈進, 「始皇論」, 『斯文』16편4호(1934.04.01.), “世之論始皇者, 或舉焚書坑儒二事而議之. 是迂儒之見, 不足深尤. 迂儒多不知政治, 安知時務? 始皇焚民間之書, 見以爲害我治也, 坑儒生, 見以爲惑民心也. 是固治國者可行之事, 何必乎始皇?”

위 인용문은 「시황론」의 시작 부분이다. 「시황론」은 먼저 일반적인 관점을 제기한 후, 남다른 시선과 식견으로 일반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론 산문의 전형적인 체재를 따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두고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사론 산문의 일반적인 창작 의도이기도 하다. 진시황을 평가할 때면 늘 언급되는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두고, 이케타니는 진시황의 잔혹함과 포학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를 내보인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꼭 진시황이 잔인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였다. 이케타니는 천하의 권력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룬 진시황이 행한 일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보았다. 그는 진시황이 세상의 무기를 모두 녹이고 사병(私兵)을 금지한 일을 두고서는 ‘천하를 안정시키는 술책(是天下安寧之術也)’이라고 하였으며, 이제 막 육국(六國)을 병합하고 통일한 상태여서 인심이 흥흥하였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지 않고서는 안정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논리 속에서 심지어 “나는 진시황이 힘으로 다스린 것이 아주 크지 않았음이 유감인데, 누가 이를 ‘포학’하다고 하겠는가(余憾始皇之出力獨未大, 孰謂暴虐.)”라고 하며, 진시황이 힘으로 다스렸던 일을 적극 옹호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한(漢) 고조(高祖)와의 비교를 통해 진시황의 행위를 더욱 정당화하였다. 한 고조는 여러 사람들의 힘에 의지하여 천하를 차지했기 때문에, 잠시 이익을 나누어 주었다가 결국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진시황은 권력을 독점하려 하였는데, 이케타니는 천자로서 그러한 의도가 당연한 것이라 보았다. 그러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천자는 제후들과 나라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진시황은 이러한 이치를 잘 살피고서 유독 봉역을 새롭게 하는 데 힘써 禹王의 자취를 좇았다. 황제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계책이 깊고도 원대하여, 실로 진시황 이전에 진시황 같은 이가 없었고 진시황 이후로도 진시황 같은 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니 성대하구나! 나는 예전에 ‘책을 불사른 일에 대한 논변’을 지었고, 이제 다시 진시황의 위대함을 들어 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維新의 대업과 일이 서로 비슷하니 그 까닭은 대체로 분명히 보일 것이다.³¹⁾

위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이케타니가 여러 역사 인물 가운데 진시황을 제재로 글을 지은 이유가 분명해진다. 막부 체제를 종식시키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한 메이지 유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한 고조의 통치 방식을 언급한 이유도 권력을 나누어 통치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두고 야마타 세이사이(山田濟齋)는 “일반적인 논의를 꺾어버리고 뼈격거리며 홀로 나아가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하여 아무 말도 없게 만들었으니, 아마 소순이라고 하더라도 말하기에 부족할 것이다.”³²⁾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사론 산문인 이 글의 문예적 성취를 두고 이른 말이다.

31) 池谷盈進, 「始皇論」, 『斯文』16편4호(1934.04.01.), “天子非與諸侯共國者. 始皇審此義, 獨力新肇域以追禹王之迹. 帝謨深遠, 可謂始皇以前無始皇, 始皇以後無始皇, 盛哉! 余前著燔書辯, 今又舉始皇之大者而言之. 如曰我國維新之大業相似, 則其所以大蓋顯然矣.”

32) 池谷盈進, 「始皇論」中 논평 부분, 『斯文』16편4호(1934.04.01.), “山田濟齋曰, ‘折倒衆論, 憂憂獨造, 使讀者張膽無語, 蓋老蘇不足言也.’”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사문》 소재 문원란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조를 살펴 보았다. 문원란에는 1919년 창간호부터 1945년 9월에 간행한 27권9호까지, 총 268호에 걸쳐 1,870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많은 양의 글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원란의 성격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도와 한학 부흥이라는 사문회의 조직 목적과 유교잡지 《사문》 발간 목적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목적과 관련 있는 글들을 중심으로 문원란의 성격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문원란은 사문회의 모임 목적과 《사문》 발간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고정란 가운데 하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대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원란 가운데 한자, 한문, 한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을 살펴 보았다. 사문회에서는 유학의 근본을 온전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문을 알아야만 하고, 한문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자를 알아야만 한다는 논리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당대에 서구 문명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한자·한문 폐지론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문원란 가운데 유가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살펴 보았다. 사문회에서는 전신인 사문학회에서부터 이미 학자와 일반 대중이 함께하는 경서 강독회를 조직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유가 경전의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유학 연구는 무척 깊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가 경전과 관련한 다양한 성격의 연구서가 제출되었으며 또 이를 둘러싼 다채로운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셋째, 문원란 가운데 역사 인물 해석의 관점을 보여주는 글을 살펴

보았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중국 역사를 타국의 역사로 인식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역사로 인식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대 자신들이 중시했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어떤 역사적 인물을 소환하여 어떤 논리를 구성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문원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문회 회원들의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원란 수록 작품의 창작이 전통 방식의 한시, 한문 창작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학 부흥이라는 사문회의 목적이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문으로 작성한 여타 고 정란과 가장 뚜렷하게 차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둘째, 작품 창작 활동이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다수 작품의 말미에 함께 수록된 논평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사문회 회원들은 한문 작품 창작에 서로 논평을 가하며 문예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거나 내용에 대해 고평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는 이들의 활동이 사문회라는 모임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원란에 실린 다수의 작품들을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하였다. 물론 다수의 개별 작품, 또는 작품군을 연구자의 분절된 시각 속에 담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도를 한 이유는 문원란에 수록된 작품이 일관되게 지향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시도가 《사문》 전체를 조감하는 데 조그만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다.

[논문접수 : 2023.12.27., 심사시작 : 2023.12.27., 심사완료 : 2024.01.11.]

<참고문헌>

- 장순순 외 편, 『일본 유교잡지 『斯文』 기사 상세목록(1919 ~ 1945)』,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10, 도서출판 선인, 2022.
- 장순순 외 편, 『일본 유교잡지 『斯文』 주요기사 1』,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12, 도서출판 선인, 2022.
- 강해수, 「‘황도유학’의 계보학-동양문화학회·다이토 문화학원·사문회에서 ‘황도’와 ‘국체’」, 『한국학연구』 6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 임상석, 「일본인 발행 국한문체 잡지 『한양보(漢陽報)』: 번역으로 보호국에 전파한 일본의 시각」, 『Journal of Korean Culture』 51, 2020.
- 정세현, 「공자제를 통한 경학원과 사문회의 교류-孔子二千四百年追遠記念祭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35, 우리한문학회, 2016.
- 정옥재,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유림과 일본의 湯島聖堂」, 『민족문화연구』 7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 한길로, 「전시체제기 유림 잡지 소재 한시의 성격과 그 실상-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Abstract>

The Significant and Meanings of Munwon section of the Sibun Magazine

Baek, Jin-woo

This study explores the Munwon(文苑) section of the ‘斯文(Sibun)’ magazine, a significant Confucian journal published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Sibun, initiated by the Hanja-focused Sibunkai in 1919, aimed to preserve and rejuvenate Han studies(漢學) amid Westernization.

The Munwon section, comprising Classical Chinese(Hanmun) literary works, reflects Sibukai members' commitment to traditional Han literary form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varied styles of Classical Chinese poetry (漢詩) and prose, underscoring the section's role in reviving Han studies. Discussions around the preservation of Hanja emphasize its cruciality in understanding Confucian texts and convey complex ideas, challenging the trend of discarding traditional Han learning.

The study also examines the influence of Sibunkai and Sibun on Korea's Confucian education system, particularly the Sungkyunkwan and Gyeonghakw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highlights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and the integration of Japanese interpretations of Confucianism, shaping Korean Confucian thought in the era.

Conclusively, the research reevaluates Sibun and Sibunkai's role in promoting Han studies during a culturally and politically turbulent

period. It offers insights into the enduring impact of these efforts on Korean Confucianism and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complexities of Han studies and Confucianism in East Asia in the early 20th century.

Key words : Sibunkai, 《Sibun》, rejuvenation of Han studies, Confucianism during Japan's colonial, Confucian journal published in Japan

